

제 133 호

연중 제 II 주일

1975. 6. 15.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 □강론□



## 성체성사께 더 가까이

권영균 신부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면서 어디에다 촛점을 제일 먼저 두는가하면 두말할 것 없이 성체를 모신 감실입니다. 이 감실안에 누가 계시기에 그렇게 합니까? 성체도리를 잘 아는 분들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하실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냐고 또 묻는다면 빵과 포도주 형상안에 살아계신다고 주저없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수난 전날 저녁에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때 이 성체성사를 친히 말씀하셨고 제정하셨기에 우리가 굳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성사를 우리는 미사중에 영성체를 통해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면 영성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체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모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나는 마지막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삽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아버지의 힘으로 삽니다. 이와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것입니다" (요한 6. 54~57) 하신 말씀대로 축성한 빵을 받아 먹음으로 살아계신 찬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예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체! 이는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묘한 천상의 은혜이며 고달픈 이 인생 사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며 위안처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천상은혜의 샘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저 하십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지상에서 33년간 살아 계셨으나 지금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취하시어 성체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와 한몸을 이루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죄의 상처 투성이인 우리에게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드려야 할 성사입니까.

우리는 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저 하시는 주님을 정성껏 받아모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군산 둔율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69

- (1) 개회식
  - 임당송**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당신은 이 내 몸의 구원이시니, /버리지 마옵소서. 내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출애굽기 19 : 2-6) 너희는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 증계송**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메이여라.
    - 은 누리 반기어 야훼께 소리쳐라/기쁨으로 야훼님 섬겨드려라/출추며 당신 앞에 나아가라. ◎
    - 제2독서** (로마 5 : 6-11 성서 p 346) 성자의 죽으심으로 화해되었으니 그의 생명으로 구원되리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9 : 36-10 : 8 성서 p 20) 당신 제자 열 둘을 모아 파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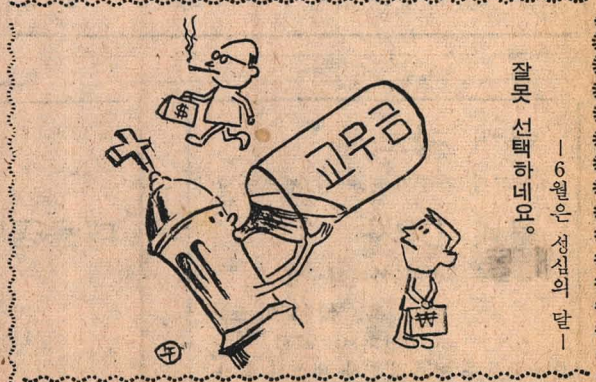
### □신자들의 기도

1. 당신의 종인 교황 바오로 6세의 대관 기념일을 맞이하여 비오니 주여! 주 친히 주의 일꾼 바오로 6세를/성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말과 모범으로 신도들을 보살피며/항상 당신의 뜻에 맞게 양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2. 주여,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남아오며/불신 풍조는 그 정도가 지나쳐 인정없는 메마른 사회입니다./주여, 당신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과 행실로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3. 모든이가 하나 되도록 간청하신 주여/비오니, 당신 백성의 각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한 우리 한 목자 밑에 굳게 뭉치어, 당신 나라를 건설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4. 언제나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사랑의 원천이신 주여, 그들에게 더욱 당신 사랑안에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더욱 풍부한 은총주소서. ◎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오직 하나 주께 빌어 일고자 하는것은,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다.

## 숲정이 산책



잘못 선택하네요.

1-6월은 성실의 달!



### 전주 교구 현황 2

1931년에 감독(監牧)대리구로 된 전라북도는 1937년에 드디어 자치교구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교세 통계표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통계는 항상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몇가지를 분석해보자.

지난 130호(75. 5. 25일자)에서 지적한 대로 전주교구 신자총수는 교구관내 총인구 2.16%뿐으로 전국 평균치 3.03%에 미달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신자 자녀 영세자 %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고, (2.5-1.6=0.9%) 병답자 %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음(12-9.7=2.3%)에도 불구하고 교구내 인구에 비한 신자 %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크리스찬 가족의 증가는 외인 영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백분율도 전국 평균치 3.3%에 미달하는 3%뿐이다.

1974년도 후반기 교회의 현실참여 이후, 전국적으로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실정이라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어쩌된 일인가?

우리 교회안에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 지성인들을 인도할 지성인들도, 대학생들도 없는가?

구 분		전 국	전주교구
신 자	신 자 총 수 인 구 비 례 %	987,047명 3.03%	56,497명 2.16%
영 세	외 인 영 세 신 자 비 례 %	33,138명 3.3%	1,699명 3%
자	신자 자녀 영세 신 자 비 례 %	16,179명 1.6%	1,425명 2.5%
병 답	병 답 자 수 신 자 비 례 %	119,672명 12%	5,501명 9.7%

### 본당 전립 회갑을 맞으며

#### 이 헌 재

지난주 순정에서 보셨음같이 금년은 전통 본당 전립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1914년에 성당 건축을 끝내고, 1915년에 대구에 계시던 안주교님을 모셔다 축성을 했읍니다.

회갑이란 함은 우리에게는 펍 의미있는 경사입니다. 서양사람들이 은경축, 금경축을 찾는 일에 비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회갑을 맞아 여러가지 감회가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먼저 지역관리 외국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도 성당건축을 하시고 그 성당을 바라보시며 선종하신 윤사베리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안 장수에서까지도 머다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자진 부역을 나와 성전 건축에 애써주신 여러 선조 어른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통 성당에서 시대 5개 본당과 두 학교들이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기쁨으로만 벅차 있을 수는 없음을 뒤늦게나마 알았읍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조상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을 찾아 정성을 모아야 함을 알았읍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꿈틀거리야 함을 알았읍니다.

어찌서 전통 성당의 일인데 우리까지 마음을 무겁게 해 주느냐고 나무라시는 분이 계시를 믿읍니다. 그러나 전통성당의 회갑이라고 해서 전통성당의 일만은 아니라고 믿읍니다. 왜냐하면 전통 성당은 전통교우들만의 성당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전통성당은 전주시대 본당의 어머니요, 전주교구의 어머니입니다. 다만 이 큰 일을 위해서 전통 본당의 교우들은 밑에서 봉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구합니다. 열서를 사신다는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우리 교구내에 새로 세워질 성전을 꾸미는 일에 여러분의 정성을 바치신다고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성당 전립 회갑 기념 행사 안내\*

1. 새 성당 짓기
2. 은혜에 감사드리기
  - ① 은인들에 대한 감사미사
  - ② 공로자 표창
3. 기념 잔치
  - ① 글짓기, 그리기 백일장
  - ② 성 영화 상영 (성 원전시오)
  - ③ 축하 공연

(전통 본당 사도회장)

###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퀴. 셀크인쇄

### 현대 DP사

\*칼라복색사진. 카메라수리

송 흥 설(토마스)

전화 ② 9431

삼남극장가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간

\*경운기·분무기·탈곡기  
\*트랙터·양수기·농기구 일철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프 각종한지  
실크 솔입벽지 파이텍스

### 대동 지를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② 5986

임 정 원(도민교)



□성심 성월□

□양 지 쪽□



# 세리(稅吏) 마테오의 고백

(루카 5:27~32 마테오 9:9~13 마르코2:13~17)

한 기 호 (요안)

—저는 원래 백성의 피땀을 착취하는 세리였습니다. 남들의 눈총을 받기가 예상입니다. 더우기 로마정부에(외국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세리라고 하여 지탄을 무척 받은 터였습니다. 국가의 충성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징수하여도 갖은 비난을 면치 못했을텐데 하물며 압박받는 외국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징수 하였으니 백성의 지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 직업이 이러 했으니 저는 고향 사람에게도 따돌림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거대한 금전으로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소외감이 깊어 갈수록 제 마음은 금전에 대한 애착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사실 세금을 징수 하기 위해 부당한 약탈도(착취) 많이 했습니다.

—금전에 대한 애착은 저를 질고(疾苦)에 빠지게 했고 그럴수록 이웃으로 부터 소외감은 저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의 이런 심정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이웃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우울한 심정으로 관 앞에 우두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소문만 들어 오던 예수께서 그앞을 지나치다 말고 대뜸 “나를 따라 오시오”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만 그말에 압도되어 의인이라 칭송 받던 그가 나를 받쳐 맞기는 물론 추종(追從)까지 권했습니다. 억눌렸던 심정이 그 한마디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해방의 희열과 타는듯한 입술에 내리는 한줄기 시원 빗방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격에 압도되어 그분을 따라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 오시오”그분의 말씀은 제 과거의 용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단순한 용서만이 아니라 새 생활로 이끌어 주는 힘있는 말씀 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잠시 후에 제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명백 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던 사건입니다. 잔치는 저에 대한 용서와 감사의 조그만 보답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잔치에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자리를 같이 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세리들은 그들의 유대적 사고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세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지요?”

—그들은 트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그분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을 회개 시키려고 왔습니다. 저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분의 능력에 쉽게 흡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의 성사를 위시한 다른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처럼 그분을 위해 뭔가 한가지 해 드려야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갔습니다.”  
(대건신학대학 연구과 1년)

## 요심이 (99) 김병오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썬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괄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013  
김원준(야고버)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빌 중앙 시장통  
(전화 ⑤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후판등>

전화 ⑤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75. 6월 16일(월) 가톨릭 센터에서 밤 8시, 신·구교 합동인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 젊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전국 교구 주일학교 지구 회장단 회합 : 6월 15일(일)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각 지구 회장, 부회장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3. 전주 교구 중, 고등학생 제 1차 회장단 회의 : 1975. 6. 22 오전 11시 30분.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 : 500원(1인)  
※정점 : 「술정미」 132호 (6월 8일자) 공지사항 3번 사제연수회를 (6. 17~20일)를 6. 27~7. 4일로 정정합니다.  
◎전동 성당 건립 60주년 기념 그림 그리기, 백일장 대회 실시 (6월 29일 오후 2시 전동에서) 교구내 국민학교 중, 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노송동 본당 하느님 공전 신축 봉헌금을 속히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 6월 16일 : 전동 천주교회에서
6. 일일 본당 사목 교육  
이대권 신부-전동 합승철 신부-중앙 김환철 신부-서학동 박종진 신부-노송동 김영일 신부-덕진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이대권  
                  ㉠3874 사도 회장 김영진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예비자 교리 시간  
성인 : 주일 공식 미사후, 화 오전 10시, 오후 8시,  
          목 오전 10시, 오후 8시  
\* 노인 : 주일 공식 미사후, 화 오전 10시  
\* 학생 : 수 오후 7. 30, 토 오후 7시, 주일 오전 9시  
\* 주일학교 : 토요일 오후 3시.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 다음주
3. 본당 신부님 명명축일에 교우 여러분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부안 성당 신입 : 44,230원 현금 : 18,680원  
중앙 : 3,800원 전동 : 26,000원 덕진 : 9,900원  
강 요안나 : 3,000원 최 안나 : 2,000원 기타 : 2,100원  
누계 : 66,480원 누계 : 3,408,947원  
◎ 지난주 신축 성미 : 2말 누계 262,되.

**(덕진)** 전화 ㉠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임원회 : 공식 미사후
2. 봉헌금 자진 납부 요망 : 우리의 성화와 교회물 위하 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느님께 약속하여 바치는 봉헌금을 성중히 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산중 타종 시간 : 아침 5. 30 점심 : 12, 저녁 : 7. 30
4. 중·고 교리 성가 : (토) 오후 5시  
◎ 애령회 성미 : 2되 성금 : 190원  
          누계 28.2홉 성금 : 4,240원

**(복자)** 전화 ㉠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납부 요망  
본당 살림이 어려우니 서로가 협력합니다.
2. 꼬미씨름 : 오늘 오후 1시 30분(전동에서)
3.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전원 참석 바랍니다.  
◎ 지난 주 성미 : 2말5되 누계 364말

**(서학동)** 전화 ㉠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중·고 학생 교리 : 오늘 9시
2. 예비자 교리 : 공식 미사후
3. L.M 꼬미씨름 : 오늘 1시 30분 전동에서.  
L.M 간부들은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4. 성당 대문, 담장 개수에 회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입 하신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도 예절시 사용하는 가단을 김 재열씨가 15,000원 회사. 다같이 감사합니다.
6. 신용 조합 이사회 : 공식 미사후

**(전동)** 전화 ㉠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원재

1. 성당 건립 기념영세 교리 : 15~22일 저녁 8시 미사후
2. 꼬미씨름 월례회 : 오후 1시 30분
3. 교리교사 연중 피정 : 21~22(토, 일)
4. 주일 학생 미사 : 주일 오후 4시(9시 미사 없음)  
◎ 애령회 성금 : 8,770원  
          ◎ 성미 : 1가마 3말 누계 : 11가마 1말

금주의 술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강 천심(메레사) 풍남동 거주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 장 계안 성 임택 성 임읍	신용조합 임시총회	3,38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동	재속 형제회	29,615원
		반 회장 회의	17,260원			신용조합 월례회	47,945원
			6,150원				3,655원
			12,280원	제 4 지구	중 노송동 덕진 서학동 전 동	성모회 월례회	52,373원
제 2 지구	대 윤명 문 동 홍 동 영 동 합 열	청년회 학생회 친선 배구대회	36,780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21,400원
		전례위원회, 성모회 월례회	23,040원	사도회 임원회	11,320원		
			13,500원				16,345원
			14,070원				14,361원
제 3 지구	고 금여	신용 협동조합 임시총회	3,030원	제 5 지구	남 무 주 장 진 순 계 안 창	무주, 금산 합동 푸리아 설립	4,660원
		신자 배가 운동에 적극 협력	12,340원			본당 논 모내기 실시	2,060원